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역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조 승 렬

1. 서 론

우리나라의 의학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왕조(1392-1910) 초기인 15세기 초는 이미 우리나라 인쇄술이 세계적으로 발전하였던 시대였으며 그 시기에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세종 15년) 85권, 의방유취(醫方類聚)(세종 27년) 266권 등 의서가 발간되었고, 이후에도 의서 발간은 활발하였다(김두중, 1966). 그러나 조선시대를 통털어, 특히 조선조 말 종두술로 대표되는 현대의학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1870년대 이후 1910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의학의 학술적 기록으로서 정기간행물(periodicals)이 발간되었던 증거가 없다(전종휘, 1987). 단지 현대의학을 가르치는 의학교 두 곳에서 학생용 교과서를 준비하고 발행하던 중 조선왕조는 망하였다. 서양에서 기원한 현대의학을 도입하기 이전에 의학 학술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이를 자체적으로 발행한 나라는 동양의 세 나라 중에는 없었고 단지 도입 시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왜 동양 사회에서는 의학 학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정기간행 체제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 해답으로는 우선 현대적인 대량 인쇄 기술에서 뒤떨어져서가 아닐까하고 생각할 수 있다. 1880년대 초 조선왕조 정부가 한성순보를 발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인쇄기술이었고 따라서 일본에서 현대식 인쇄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첫 단계였던 것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단시간

에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대량으로 찍어 내고 판매하여 확대 재생산할 기술이 훨씬 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수 많은 이야기책을 상업적으로 찍어내었던 역사가 있고 유교 철학을 전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민간 교육용 정부간행물을 대량 발간한 역사도 있으므로 반드시 인쇄기술상의 어려움만으로 해답을 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쇄술의 후진성보다는 조선을 비롯한 동양사회 전체의 성격과 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농업국가는 동시대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아(飢餓)와 역병(疫病)의 시기를 보내서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또 언제 사고나 질병으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나라였다. 따라서 인명이 귀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의료에 힘쓸 여력이 없었다. 역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군왕이나 사대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 민심이 덜 동요하도록 다스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였다. 어진 왕의 시절에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고는 하였지만 서양에서 1500년대 이후 줄기차게 진행된 의료의 과학화와 같은 노력은 실제로도 없었고 생각하기도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농업사회를 다스리는 틀로서 유교 독재를 실시한 나라에서 장유유서의 가르침을 어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은 자칫 자신과 가문의 목을 내걸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을 지배한 유교는

그 학문이 우주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고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에 와 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은 좁은 생활공간에서 작은 이익을 치열하게 다투는 데에 익숙하고 열중한 상태였다. 무(巫)의 전통이 각 가정에 뿌리깊었던 시절에 시체를 해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심지어 임진왜란에 죽은 일본 군인 시체 몇을 해부해 본 의생들도 그 사실을 숨겨야만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사회였고 원혼(冤魂)을 그리도 무서워하여 죽은 이의 원풀이를 그리 중하게 여기면서도 시체 해부 검사는 안되고 시체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검안(檢案)만을 실시하는 나라였다. 김두중(1966)의 한국의학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중국에서 새로운 문물을 배워 책을 만들었고 중국과 우리나라 과거 의서를 집대성(集大成)한 저술이 나왔었다. 그러나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의학 지식을 창조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하는 저술은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철학적, 사회적인 제약과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하였고 그것이야말로 의학 학술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이 출현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역사를 말하려는 자리에서 실제로 정기간행물이 전혀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길게 쓰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학 학술지가 서양의 일류 의학 학술지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고 그 연원(淵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학술지의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즉 학술지를 만드는 사람이나 학술지에 글을 쓴 사람의 사고방식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나열한 조선시대식 발전 억제요소가 우리에게 상존하여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내용중 지적(知的)으로 도전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는 없었다. 서양과 일본에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개념, 진단법, 치료법, 약제 등을 먼저 재빨리 도입하여 글을

쓰는 것이 대중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의학 학술지는 서양의 일류 학술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그것이야말로 상업화하는 데에 실패하는 기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지적 분위기가 그런 상태인데 의학계만이 독야청청할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하려면 창조적인 사고방식과 독자적인 글쓰기를 더욱 격려하는 분위기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글을 청탁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가톨릭 의대 서서과 김호배과장에게 동 도서관에서 소장한 의학 학술지의 서지학적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그리고 康哲榮(1966) 교수의 “韓國醫學雜誌略史”(一山 金斗鍾博士 稀壽紀念 論文集, 261-314, 탐구당, 서울)와 全鍾暉(1987) 교수의 “醫書 및 學術誌의 發刊歷程”(우리나라 現代醫學 그 첫 世紀, 206-359, 인제연구장학재단 발행)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특히 전종휘 교수가 일생 동안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 밖에는 이 글을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2. 과거 우리나라 의학잡지사(史)

2-1. 韓國醫學雜誌略史

이 글은 전 서울의대 내과 강석영교수가 우리나라에서 1965년 3월까지 발간된 의학잡지에 대하여 그 종류를 분류 나열하고 평가한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잡지사(史)이다. 우리나라 의학잡지를 의학도서관에서 조차 휴대하는 현상을 개탄하는 서론과 해방전의 의학잡지와 해방후 6·25까지의 잡지 그리고 수복후 1965년까지의 잡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휴전이후의 잡지는 종합잡지, 분과학회잡지, 각 기관(의대, 병원 및 연구소) 발간잡지 및 군진의학잡지로 구분하여 창간시기, 발행인 및 편집인, 인쇄소, 발간 경과 등을 기록한 것이다.

강석영교수는 1949년에 우리나라 분과학회 잡지로는 처음으로 창간한 大韓內科學會雜誌의 편집 실무 책임자이었고 또 의학논문을 쓰는 사람

을 위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醫學論文과 그 校正”(康哲榮, 金基鈴, 金允基 共著, 1962, 1-143, 박애출판사)이란 단행본의 제1저자였던 경력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학잡지의 편집, 인쇄 및 제작에 있어서 실무 경험과 철학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이 글은 각 잡지의 인쇄기술상 및 편집상의 문제를 세세하게 지적한 것이 특징이다.

2-2. 醫書 및 學術誌의 發刊歷程

이 글은 전 서울의대/가톨릭의대/인제의대의 전염병내과 전종휘 교수가 평소 관심을 갖고 수집 정리한 우리나라의 의학관계 학술지와 의서를 1987년 창간한 것까지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평가한, 이 분야의 집대성이다. 특히 이 글은 잡지 하나하나의 현물을 소장(所藏), 검토, 확인하면서 쓴, 의학도서관에서도 하기 어려운, 개인의 힘으로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일을 이룬 업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학도서관 중 우리나라 의학잡지의 원본, 특히 창간호를 전종휘교수 만큼 애정을 갖고 소장 정리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종휘 교수는 특히 기록으로서의 의학서적에 오랜동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였다. 전종휘 교수는 학회의 창립에도 관심이 많았고 더구나 학회의 학술지 창간에 힘을 기울여 기생충학잡지, 감염, 大韓免疫學會誌 등은 모두 전종휘 교수가 각 학회의 회장으로 계실 때 창간한 것이다. 이 글의 특징은 각시대별 의학잡지의 내용을 검토한 후 기록한 것이어서 그 서지학적 관련사항이 정확하다는 데에 있다.

2-3. 기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1974년부터 기관지 “한국의학도서관”을 발행하면서 의학도서관의 서지학적 필요성 때문에 의학잡지를 정리한 글이 있다. 그 예로는 李承河(1975) 韓國醫學關係雜誌 實態調査. 한국의학도서관 2(2), 36-46; 金好培(1980) 韓國醫學雜誌에 關한 研究. 한국의학도서관 8(2), 1-13; 이승하(1988) 한국의학관계잡지 통계분석. 한국의학도서관 15(1), 1-14 등이다.

3.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역사

3-1. 의학 학술지의 범위

의학은 사회를 구성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 다른 분야와 복잡하게 연계되어 발전한다. 그리고 과거 의학분야에서 다루던 문제 중 최근 분화하여 독자적인 분야로 더욱 발전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취급하는 의학 학술지는 가톨릭의대 의학도서관이 소장하는 우리나라 의학관계 정기간행물 413개 학술지 제목 중, 최근 급속히 분화발전하는 치과학과 간호학분야의 학술지, 아직 수가 많지는 않은 약학, 수의학, 한의학, 환경, 의학기술분야 학술지 및 의학과 관련이 있어 도서관에서는 필요하지만 순수 자연과학분야나 공학적 학술지로서 성격이 강한 학술지는 제외하였다. 이상의 분야를 제외하면 가족계획 분야를 포함한 보건분야의 학술지가 포함되어 그 범위가 전종휘 교수가 취급하였던 범위와 대략 일치한다.

3-2. 의학학술지의 발간 역사

이 글에서는 1945년 이전의 의학 학술지에 대하여는 위 전종휘교수의 글로 대신하고 해방 이후의 의학 학술지만을 간략하게 나열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나열하는 의학학술지 중 지금까지 계속 출판되는 학술지는 고딕체로 표기하여 글의 길이를 줄이고자 한다.

3-2-1. 해방후 한국동란까지의 의학 학술지

해방전에 발행되었던 朝鮮醫報(1930-1937) 이후 우리말로 된 의학 학술지가 처음으로 발간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의학 학술지는 당시 의학 정보의 양이 워낙 모자라고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의 수도 적은데다 콜레라 등 전염병은 창궐하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불안정한 시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 시기에 조선의학협회(1947. 5.)와 분과학회가 많이 창립되었다. 의학협회는 그 와중에도 朝鮮醫學會報를 두번 발간하고(1948. 5. 창간) 한국동란으로 휴간하다가 1958년 大韓醫學協會雜誌로 다시 발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大韓內科學會雜誌는 1949년

10월에 창간하여 한번 발간후 동란으로 휴간되었다가 1958. 12월부터 속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군정청(朝鮮醫事新報, 1946년, 월간, 2회 발행후 폐간)과 민간(朝鮮醫學新報 1946년 월간 수회 발간후 폐간; 朝鮮醫報 1946년 12월, 김두중주간, 월간, 통권 15호이후 폐간; 全北醫報 1948년, 년간, 2회 발간후 폐간; 臨床醫學, 1949년, 이주걸/유병서 편집, 월간, 통권 7호 후 폐간)에서 학술지를 발간하였다(전종휘, 1987).

3-2-2. 한국동란 발발과 군진의학지

한국동란 발발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의료인력은 군에 징집된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에 군진의학 학술지가 발간되어 1951년 이후 5-10년간 우리 의학을 주도하고 미국의 새로운 의학을 소개하며 학술적 정보를 제공한 시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육군의 戰傷治療 參考資料(1951. 5), 醫星(1951. 7), 陸軍醫務將校團雜誌(1954. 2), 군진의학(1960) 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발간된 육군의 의학 학술지와, 海軍醫務團雜誌(1955-1973) 및 航空醫學(1953) 등이 그것이다. 1960년대 초 이후 대한군진의학(1960-1965) 등을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다가 지금은 대한군진의학학술지(1974)의 이름으로 1993년 현재 제23권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한국형출혈열(1973), 암학술지(1973)등을 부정기적으로 발간한다. 해군에서는 해양의학(1977-1991)이란 학술지를 발간한다. 한때 우리나라 의학의 기둥이었던 군진의학 학술지가 1960년대 초 이후 그 가치를 잃게 된 이유는 우수한 의료인력이 민간인 신분으로 예편되면서 일어난 장기복무자 부족, 군진의학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욕적인 군의(軍醫) 지휘관이나 단기복무 군의장교가 나타날 때에는 학술지가 강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중단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등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3-2-3. 휴전(1953) 이후 지금까지의 분야별 학술지 출판 상황

휴전이 되면서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당면하였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으며 전무(全無)라는 상태에서 백지에 그림그리듯 새로이 판을 짜나가야만 할 때였다. 그 시기에 의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미국의 전후 복구지원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ICA 및 기타 민간원조단체가 의학 교육 인력을 미국 의과대학에서 재훈련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의 국립 및 사립 의대의 교수들은 기존 일본식 학교육과 의료체계를 일부는 완전히 허물고 일부는 그 바탕을 보전한 채 그 위에 미국식 체계를 접목하였다. 의학 학술지의 발간작업도 이러한 시대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3-2-3-1. 일반 의학 학술지의 발간

1953년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사이의 의학 학술지 창간 상황을 분석하면 제일 두드러지는 현상이 일반 의학 학술지가 연속적으로 창간되었다가는 폐간된 일이다. 일반 의학 학술지란 의사 또는 출판인 출신의 발행인이 의학 학술정보지를 발행하고 의료인에게 판매하여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학술지를 말한다. 보기 나름으로는 의학 학술지의 발전단계상 가장 나중에 나타났어야 했을 형태가 나쁜 시기에 의욕적인 발행인들이 먼저 시도하여 처참하게 실패한 예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전종휘 교수 글(1987)에 나타난 희망성쇠를 간략히 요약하면 醫學(1954년 창간, 2호로 폐간), 新藥界(新醫藥)(1956년 창간, 2권1호 폐간), 綜合醫學(1956년 창간, 1970년 폐간), 韓國醫藥(1958년 창간, 1961년 폐간), 最新醫學(1958년 창간, 현존), 醫學다이제스트(1959년 창간, 1962년 폐간), 中央醫學(1961년 창간, 현존), 現代醫學(1964년 창간, 1968년 폐간), 韓國의 現代醫學(1969년 창간, 1970년 폐간), 臨床研究(1976년 창간, 1979년 폐간), 診斷과 治療(1981년 창간, 현존), 臨床醫學(1986년 창간호 내고 폐간) 등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현존하는 의학 학술지도 앞으로 유가지(有價誌)가 되어 이를 구독하는 독자를 확보하고, 여기에 광고비를 받는 것만으로 세금내고 사업비를 제하고도 이익이 남는 쪽

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런 운영 형태를 취하는 의학 학술지는 우리나라에는 없다. 1966년의 강석영 교수 글에는 이들 일반 의학 학술지가 단명하고 폐간된 이유는 불황으로 인하여 약품광고 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유가지이면서도 학술지를 판매하지 못하고 의사들에게 무료 배포한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구독료가 수입의 원천이 아니었고 저자부담금과 광고비만으로 운영하다가 한쪽의 수입이 막히면 도산하고 말았다. 지금 현존하는 최신의학과 중앙의학도 실제 경영 방법은 과거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이들 잡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의과대학이 생긴 이후 논문 게재자의 성격을 변경하여 생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3-2. 의과대학 학술지

의과대학이 발행하는 의학학술지는 1955년 한미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서울의대에서 醫大學報를 한번 발간하고 다시 1960년부터 서울醫大雜誌, 1976년 서울醫大學術誌, 1984년 Seoul J. Medicine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속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중 종류도 많고 폐간된 것 없이(부정기적으로 발간된 사례가 있지만) 유지된 의학 학술지이다. 발행 주체는 의과대학이 대부분이지만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연구소나 의료원이 발행하는 학술지도 이 범주에 넣었다. 학술지 명칭이 창간 당시의 것을 유지한 예가 많지 않으므로 현재 발간되는 명칭을 기준으로 창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톨릭의대논문집(1957), 경북의대잡지(1958), 부산의대학술지(1959), Yonsei Medical J.(1960)과 연세의대논문집(1968-1987)/연세의대학위논문집(1988), 고려대학교의과대학논문집(1964), 전남의대잡지(1964)와 영문판 Chonnam J Medical Science(1988), 중앙의대의 한국의과학(1969)과 중앙의대지(1975), 충남의대잡지(1974), 조선의대의 의학연구(1974-77, 1983), 경희의대논문집(1976)과 경희의학(1985), 전북의대논문집(1977), 이화의대지(1978), 순천향대학 논문집(1978), 인제의학

(1980), 한림의대의 인간과학(1981), 한양의대학술지(1981), 계명의대논문집(1982), 영남의대학술지(1984), 고신대학의학부논문집(1985), 원광의과학(1985), 원주의대논문집(1988), 동아의대학술지(1989), 충북의대학술지(1991), 건국의과학학술지(1991), 울산의대학술지(1992), 인하의대학술지(1994)등 모두 28개 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31종이다.

의과대학 학술지는 아직 월간이나 격월간으로 발간할 만큼 발전한 예는 없고 계간(季刊)이 제일 자주 발간하는 것이다. 또 취급하는 논문의 전문분야가 다양하므로 그점은 장점일 수 있으나 전문화하는 의학분야에서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논문을 양적으로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읽고 인용해 주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에 맞추기 위하여는 무가지(無價誌)로 여러 도서관과 다양한 전문가에게 배포하여야 하였으므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 특히 교육부나 과학기술처가 대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그 내용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는 학회지나 외국의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려고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게재 논문수를 확보하려고 학위논문 등을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한 강제규정(매우 바람직하지 않은)을 정하지 않은 의대학술지가 앞으로 어떻게 존속, 발전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대학 학술지 중에는 Yonsei Medical J. 과 같이 1960년대 부터 지금까지 Index Medicus/Medline에 계속 인용되는 우수한 학술지도 있고, 또 의대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교수가 상당수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말로 발간하는 의학 학술지도 앞으로 존속하거나 늘어나야 하는 필요성과 필연성, 그리고 종합 의학 학술지를 잘 키우지 못한 우리 의학계의 결함을 앞으로는 교정하여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의대학술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여 발전시킬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지금은 각 의대의 학술지 발행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3-2-3-3. 분과학회의 학술지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대종은 분과학회의 학술지이다. 발행되는 종류나 발간회수, 발행부수 및 페이지 수 등에서 다른 분야 학술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의학의 발전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의과대학 교과목에 따라 형성된 학회의 잡지를 전문학술지(specialty journal)로 정하고, 그 세부 분야의 학술지나 몇가지 전문분야가 모여 형성된 세부전문학술지(subspecialty journal)로 분류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전문학술지와 세부전문학술지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예민한 문제이지만 위 구분점을 기준으로 한 구분으로 보아 주기 바란다. 전문학술지는 1958년부터 그 발행이 본격화하여 대강 1960년대 말에 이미 그 틀이 완성되고, 세부전문학술지는 1960년대 초반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특히 1980년대에 왕성하게 창간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창간하고 있다.

3-2-3-3-1. 전문학술지

이 분야의 선구자 격인 대한내과학회잡지는 1949년에 창간되었으나 중단되었다가 1958년에 속간되면서 계간 발행, 1961년 격월간, 1962년 이후 월간으로 발행하였다. 대한내과학회에서는 영문판 Korean J Internal Medicine을 1986년부터 별도로 발행한다. 1958년부터 시작된 임상의학 분야의 전문학술지는 소아과(대한소아과학회 발행, 1958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1958년-), 대한안과학회잡지(1958년-)와 Korean J Ophthalmology(1987년-), 대한산부인과과학회잡지(1958년-), 외과학잡지(1959년-), 대한피부과학회지(1960년-)와 Annals of Dermatology(1989년-), 대한비뇨기과학회잡지(1960년-), 신경정신의학(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행, 1962년), 대한방사선의학회지(1964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1966년-)와 J Korean Orthopedic Association(1986-1991), 대한마취과학회지(1968년-), 대한흉부(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지(1968년-), 대한신경외과학회지(1972년-), 대한성형외과학회지(1974년-), 대한재활의학회지(1972년-), 대

한임상병리학회지(1981년-), 대한신경과학회지(1983년-),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1983년-) 등 모두 22종이 발행된다.

한편 기초의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는 대한미생물학회지(1958년 창간후 중단, 1961년 2권 발간, 1968년 이후 속간), Korean J Parasitology/기생충학잡지(1963년-), Korean J Biochemistry(1964년-), Korean J Pharmacology(1965년-), Korean J Physiology(1967년-), 대한병리학회지(1967년-), 豫防醫學會誌(1968년-), 대한해부학회지(1968년-), 대한법의학회지(1977년-), 의사학(1992년-) 10종이 발행되고 있다.

3-2-3-3-2. 세부전문학술지

세부전문학술지는 분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명백히 내과학의 한 세부분과(subspecialty)인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 전문분야 전문가의 집합체로 형성된 것도 있어 어느 분야에 소속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로 세로로 얽힌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학 발전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의학의 세분화 전문화를 잘 대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추세도 그러하므로 우리도 새로운 체계를 빨리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때로는 아직 학술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조급하게 선진국의 발전을 모방하였다는 비판과 분과적인 행위의 결과로 만들게 된 학술지라는 비판을 듣는 경우도 있다.

세부전문학술지중 우선 명백하게 내과학의 세부전문분과이거나 그것이 주축이 되어 다른 전문분야의 세부전문 분과와 합동으로 성립된 학회의 학술지를 나열하면 결핵 및 호흡기질환(1954년-), 대한혈액학회잡지(1966년-), 대한암학회지(1966년-), 대한핵의학회잡지(1967년-), 대한소화기병학회잡지(1968년-), 감염(대한감염학회 발행, 1969년-), 순환기(1971년-), 당뇨병(1972년-), 한국노년학회지(1980년-), 알레르기(1981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잡지(1981년-), 대한신장학회잡지(1982년-), 대한내분비학회지(1986년-), 한국노화학회지(1991년-), 한국지질학회지(한국脂質학회, 1991년-), 한국 BRM학회지(한국Biological Response Modifier학회,

1992년-), 대한비만학회지(1992년-), 한국심초음파학회지(1993년-), 대한류마티스학회지(1994년-), 한국지혈혈전학회지(1994년-) 등 20종이 있다.

외과학 계열의 세부전문 분과학회지의 창간도 1980년대부터 활발하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지(1978년-), 대한스포츠의학회지(1983년-),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1985년-), 대한두경부종양학술지(1985년-), 대한맥관외과학회지(1985년-), 대한구급의학회지(1986년-), 대한이식학회지(1987년-), 대한외상학회지(1988년-), 대한통증학회지(1988년-), 대한골절학회지(1988년-), 대한슬관절학회지(1989년-), 대한고관절학회지(1989년-), 대한응급의학회지(1990년-), 대한골대사학회지(1994년-), 대한척추외과학회지(1994년-), 대한소아외과학회지(1995년-) 등 16종에 달한다.

소아과 계열의 세부전문 분과학회지로는 소아청소년정신의학(1990년-), 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지(1991년-), 대한소아신경학회지(1993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지(1994년-), 대한신생아학회지(1994년-) 등 5종, 산부인과학 계열로는 대한불임학회지(1974년-),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잡지(1989년-), 대한주산의학회잡지(1990년-),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잡지(1990년-) 등 4종, 정신과 계열로는 임상예술(한국임상예술학회, 1985년-), 심성연구(한국분석심리학회, 1986년-), 한국임상성학회지(1989년-), 대한정신약물학회지(1990년-), 정신병리학(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1992년-), 정신분석(한국정신분석학회, 1990년-), 수면정신생리(1994년-), 스트레스연구(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 1994년-) 등 8종, 방사선과학 계열로는 방사선방어학회지(1976년-), 대한초음파의학회지(1982년-) 등 2종, 병리학/임상병리학 계열로는 임상병리와 정도관리(1979년-), 대한세포병리학회지(1990년-), 대한수혈학회지(1990년-) 등 3종, 미생물학 계열로는 위 결핵 및 호흡기질환을 제외하고도 대한나학회지(1960년 창간, 1967년 속간), 대한바이러스학회지(1971년-), 대한면역학회지(1979년-), 대한화학요법학회지(1983

년) 등 4종, 약리학/약학 계열로는 고려인삼학회지(1976년-),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1981년-), 한국독성학회지(1985년-), 임상약리학회지(1993년-) 등 4종, 예방의학 및 보건학 계열로는 한국농촌의학회지(1976년-) 한국역학회지(1979년-), 한국보건교육학회지(1983년-), 보험의학회지(1984년-), 대한산업의학회지(1989년-), 보건행정학회지(1991년-), 한국보건통계학회지(1976-부정기), 한국인구학회지(한국인구학회, 1977년-부정기) 등 8종, 해부학 계열로는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1969년-), 체질인류학회지(1988년-) 등 2종과 기타 의공학회지(대한의용생체공학회, 1980년-),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1985년-), 대한의학레이저학회지(1984년-), 의학물리(한국의학물리학회, 1990년-), 한국패류학회지(1985년-) 등 5종이 있다.

3-2-3-3. 기타

학회발행 학술지 중에는 종합 의학적 성격을 가진 가정의학회지(1980년-)와 한국의학교육(한국의학교육학회, 1989년-)가 발간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잡지로 교통의학회에서 발행한 교통의학(1964-1988)이 있었으나 폐간되었다. 부산에서 발행하는 부산소아과(1988년-), 부산외과학회지(1985년-), 부산정신의학(1992년-), 부산지방내과학회지(1987년-), 임상이비인후과(부산경남이비인후과학회, 1990년-) 등이 발행되고 있으나 회원간 친목회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2-3-4. 협회와 병원, 연구소 등의 기관지

3-2-3-4-1. 협회기관지

대한의사협회지(1949년-)는 1992년부터 성격을 바꿔 고급 의학 종설을 주로 다루는 학술지로 변모하였다. J Korean Medical Science(1986년-)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종합학술지이다.

기타 의학과 관련된 협회의 기관지로는 의학교육(한국의학교육협회, 1971년-), 대한병원협회지(1972년-), 대한보건협회지(1975년-), 한국여자의사회지(1976년-) 등과, 산업보건, 산업보건연구논문집(대한산업보건협회 발행), 스포츠

과학연구보고서(대한체육회 발행, 1964년-), 의료와선교(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1991년-),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1969년-),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1969년-), 그리스도와의료(한국기독교사회, 부정기), 한국의학도서관(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발행, 1974년-), 재활(한국장애자재활협회, 1969년-), 의료보험(의료보험연합회, 1978년-), 부산의사회지(1965년-), 마산시의사회지(1983년-), 인천시의사회지(1982년-) 등이 있으나 모두 학술지의 성격을 엄격히 지키는 편이 아니다.

3-2-3-4-2 병원기관지

1970년대 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중요 교육병원 또는 의료법인에서는 자체의 의학 학술지를 발간하려고 노력하였다. 1960년대에 중요한 의학 교육기관이었고 정보원이었던 국립의료원의 논문집(1960년-1970년)은 폐간되었고 그 이후, 한일병원입상잡지(1970년-), 적십자병원지(1974년-), 예수병원학술지(1977년- 부정기), 高醫(전 고려병원 발행, 1977년-), 원자력병원연구논문집(1979년 창간, 1989년-), 乙支醫報(1978년-), 위생의보(서울위생병원 발행, 1980년-), 인천기독교병원지(1981년-), 인천길병원(1981년-), 世宗醫學(부천세종병원 발행, 1984년-), 침례병원학술지(1984년-), 지방공사인천병원논문집(1985년-), 성분도병원논문집(1985년-, 부정기), 제일의학(제일의료재단 발행, 1986년-), 일신기독교병원논문집(1986년-), 강남병원입상연구논문집(1988년-), 메리놀병원논문집(1991년-) 등 17종이 현재 발행되고 있으나 의과대학 발행 의학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 병원 연구 업적철(archives)의 성격을 면치 못한 경우가 많다.

3-2-3-4-3. 국립 및 사립 연구소의 기관지

국립연구기관의 학술지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것은 국립방역연구소보/국립보건연구원보(1947-1962, 1964년-)라고 할 수 있다. 기타 국립연구소의 학술지로는 가족계획연구/가족계획논문집(가족계획연구원 발행, 1971-1980, 폐간), 인구정보(가족계획연구원, 1978-1981 폐간), 감염

병발생정보(국립보건원미생물부 역학조사과 발행, 199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년보(1960년-), 국립안전연구원보(1988년-), 국립환경연구소보(1980년-), 보건사회논집(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발행, 1981년-), 보건환경연구소보(1990년-) 등 8종이 있다.

대학의 연구소 또는 교실이 발행하는 학술지로는 舍春內科(서울의대 내과동문회 발행, 1970년-1992년 폐간), 舍春醫學(서울의대 동창회 발행, 1972년-1975년 폐간), 서울의대정신의학/정신의학(서울의대정신과학교실 발행, 1976년-), 병원연구(서울대학교병원 부설 병원연구소 발행, 1982년-1990년 폐간), 결핵연구소연구보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결핵연구소 발행, 1987년-부정기), 보건학논집(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64년-), 국민보건연구소연구논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 발행, 1989년-), Yonsei Reports on Tropical Medicine(연세대 열대의학연구소 발행, 1970년-), 연세보건(연세대 보건대학원, 1982년-), 장애아동연구소논문집(연세의대 장애아동연구소 발행, 1992년-), 한국의산업의학(가톨릭대학교 부설 산업의학연구소 발행, 1964년-), Bulletin of the Clinical Research Institute(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의학연구소 발행, 1973년-), 가톨릭암센터논집(가톨릭암센터 발행, 1987년-), 정신건강연구(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발행, 1983년-), 원광정신의학(1985년-) 등이 있다. 민간 연구단체 또는 연구지원단체의 기관지로는 과거 농촌위생(개정농촌위생연구소, 1951년- 부정기)이 있었으나 폐간하였고, 보건장학회연구논문집(1968년-), 나(한국나병연구소, 1978년-), 인삼연구(고려인삼연구소, 1979년-), 수혈(대한적십자사 혈액연구소 발행, 1980년-), 재활과학연구(대구대학 재활과학연구소, 1979년-), 재활연구(삼육아동재활원, 1975년-)과 민간인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는 녹십자의보(1973년-), 화상연구(동아엑스선기계방사선기술연구소 발행, 1993년-), 보건법률((주) 보건법률 발행, 1984년-), 인구문제(인구문제연구소 발행, 1965년-)등이 발간된다.

3-2-3-5. 영문초록집 및 색인집

한국산업연구원에서는 1971년부터 Korean Medical Abstracts를 계간으로 발행하였다. 1975년부터 대한의학협회에서는 Medical Abstracts Korea를 1974년부터 발행하였으나 1988년 폐간하였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Korean Index Medicus를 1982년부터 출판하였다.

3-2-4. 동란이후(1953년) 현존하는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요약

그동안 발행되다가 폐간한 학술지를 제외하고 1995년 현재 발행되는 의학 학술지를 보면 출판사 발행 일반지 3종, 군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3종, 의과대학 발행 학술지 31종, 학회 학술지(specialty journals) 32종, 세부전문 학술지(subspecialty journals) 83종, 협회지 및 지방 분

과학회지 18종, 병원기관지 17종, 국립 및 사립 연구소와 교실 발행 학술지 31종, 영문초록지 2종 등 220종이나 된다. 이 수치는 이승하(1988)이나 김호배(1980)의 글이나 가톨릭의대 도서관이 소장하는 도서목록에 나타난 학술지 중 치의학, 간호학, 약학, 수의학, 한의학, 식품영양학 등 분야의 것을 제외한 것이고 보건 분야의 것만을 포함한 수치이므로 과거에 비하여 급증한 것이다.

이 기간에 나타난 의학 학술지의 특징을 요약하면 상업적 출판사가 발행하는 일반 의학학술지는 거의 궤멸당하고, 군(軍)이나 국립연구소, 대학연구소와 교실이 발행하는 학술지 등은 그 종류나 출판량에 있어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린 반면 의과대학의 학술지와 학회발행 학술지의 발전이 괄목하였다. 의대 학술지에 비하면 학회 기관지의 발전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1960년

Table 1. Quantitative analysis of 125 random-selected medical journal titles in 10-year interval

Year/Category	No. of journals	Total of numbers	Total pages	No. of articles
1960 Med school journals	4	6	996	82
Specialty journals	8	16	1462	181
Subspecialty journals	2	3	320	43
All others	3	13	1192	169
1970 Med school journals	6	14	2506	209
Specialty journals	19	83	5066	745
Subspecialty journals	7	12	738	74
All others	3	15	2166	223
1980 Med school journals	9	426	4435	471
Specialty journals	26	110	12436	1598
Subspecialty journals	15	21	1867	181
All others	9	47	4122	482
1990 Med school journals	16	40	7053	704
Specialty journals	29	178	26983	3370
Subspecialty journals	47	97	12381	1362
All others	13	60	6007	717

대의 전문학회의 학술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세부전문학술지의 발전은 눈부실 지경이다.

4. 의학 학술지의 양적 팽창 양상

가톨릭의대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를 무작위추출하고 1960년부터 10년단위로 1970년, 1980년 및 1990년에 출판된 것을 조사하고 출판물의 종류수, 호(號)수, 총 페이지수 및 그해의 논문수 등을 계측한 바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 표는 위에서 기술한 것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1970년과 1980년 대에는 우리나라의 전문학회의 학술지가 양적으로 우세하였고, 계속 1990년에도 팽창하면서 발간회수를 늘렸다. 1980년대에는 특히 세부 전문분야의 학술지의 종류, 호수, 페이지, 논문수 등 모든 지표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급속하게 팽창하였음을 1990년도 자료가 보이고 있다.

5.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는 양적으로만 팽창하였는가?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의학 학술지는 그 종류, 발간회수, 논문수, 총면수(總面數) 등이 명백하게 늘어났다. 특히 임상의학 분야 학술지가 기초의학 학술지에 비하여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세부 전문 학술지의 발전은 1960년대까지는 전염병 분야중 결핵학, 기생충학, 나병학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특히 1980년대 이후 순환기, 소화기내과, 신장학 등의 내과 분야는 물

론이고 외과, 정형외과 등의 분야에서도 양적으로 발전하였다.

전문학술지 및 세부전문 학술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에는 학회지의 인쇄상태도 개선되어 종이는 물론, 사진, 도표 등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전공분야가 아닌 학술지를 해당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읽으면 내용이 새롭고 매호마다 과학적 사실도 향상되었음을(update)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방사선의학회지 최근호를 펴보면 마치 서양에서 막 도착한 일류 학술지를 펴보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술지 인쇄나 편집수준은 대한방사선의학회지와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학술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한의학회가 1989년 이후 학술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는 서양의 일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읽을 때에 느끼는 신선함을 우리 학술지를 그 전공자가 읽고도 느끼도록 편집 방향이 개선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양적인 팽창은 반드시 질적인 향상을 동반하게 마련이며 질적 향상이란 독자의 지적(知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학술지가 편집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미 아는 사실을 단순히 반복하는 논문은 학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임을 저자와 독자들에게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 더 흥미있는 논문이 되도록 다시 쓰는 훈련을 하여 학술지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